

	보도자료	배포일자	8. 4.(화)	매수	2매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공공의료본부 지역책임의료팀	실 장	한 은 주		054-530-3042
		담 당	최 민 지		054-530-3023

상주적십자병원, 2026년 돌봄 종사자 응급처치 역량 교육 현황리에 마쳐



사진설명: 상주적십자병원이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상주적십자병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관련 돌봄 종사자 응급처치 대응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이번 교육은 노인돌봄시설 종사자들이 돌봄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총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상주권 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상주시 6개소, 문경시 11개소) 종사자 195명이 참여했으며,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발생 시 응급처치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그 결과 교육 만족도 조사와 교육 전·후 향상도 평가에서 98%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는 등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 특히 본 교육은 사업초기부터 올해로 5년째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70개소에서 1,8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4개 기관은 두 차례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상주적십자병원은 향후 교육 횟수 확대와 운영 방식 다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혁수 병원장은 “돌봄시설 종사자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응급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